

방부처리된 시간의 거대한 카타콤

박물관에 관한 명상



구석기의 해골모형을 지나자 유리벽 너머 빗살무늬토기가 놓여 있다. 그것은 뚝석기인 흑요석 화살촉들과 간석기인 돌추, 돌바늘들과 함께 전시돼 있다. 조각조각 이어붙여 복원해냈긴 하지만, 토기의 표면에 새겨진 빗살무늬는 선명하다. 무늬를 새길 때 밀린 흙자국까지 토기 표면에 남아 있다.

토기 밑부분이 왜 뽕족한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유리벽 너머 토기에 새겨진 시간은 4천년 전이다. 빗살무늬토기의 시간은 강가에 움집을 짓고 최초로 경작을 하고 돌그물추를 단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토기에 음식을 데우던 사람들의 시간이다. 토기는 자신이 구워지고 쓰여진 4천년 전의 시간에서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생략해버리고 내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유리벽 안의 시간은 포르말린에 담긴 생물표본처럼 썩지 않는, 방부된 시간이다. 나는 저 방부처리된 시간이 끔찍해진다.

신석기시대 유물관에는 고통동굴에서 발굴된 유적들이 따로 모아져 있다. 그 동굴은 무덤이었다고 해설에는 나와 있다. 그러나 동굴은 무덤으로 사용되기 전에 집이었다고 한다. 동굴은 집으로 태어났다가 거기 살던 사람들과 함께 무덤으로 마감된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이 내 무덤이 된다면? 으스스 소름이 돋는다. 생각해보면 박물관은 시간의 거대한 카타콤이 아닌가.

소멸에 저항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

청동기시대 유물관을 지나 철기시대 대로 옮겨간다. 방 하나를 겨우 옮겨간 것이지만 정말 나는 단번에 수천년을 지나간 것이다. 그건 마치 영화 <백 투 더 퓨처>나 <타임머신>의 시간여행처럼 짜릿하면서도 우울하다. 몇 천살이나 한꺼번에 먹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철기시대 전시실에서 악기 하나가 나를 붙잡는다. 이 현악기는 광주 신창동 유적과 창원 다호리 유적, 경산 임당 유적 출토품을 근거로 복제한 것이라고 써여 있다. 초기 철기시대인 기원전 1세기 경의 유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현악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다. 가야금의 시원형이라고도 써여 있다. 그러나 악기는 소리가 없다. 소리를 잃어버린 게 분명하다. 소리를 잃어버린 악기도 악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 내가 물어도 유리벽 안쪽의 공기는 전혀 어떤 떨림도 전해오지 않는다. 연주법은 사라져버리고 껍질만 남은 현악기는 슬프다.

역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유물과 유적은 그 기억의 증거품이다. 기억을 증거하기 위해 인간은 폼페이와 용암 유적에 석고를 부어 그 끔찍한 죽음의 순간까지 복원해내는가 하면 무덤을 파헤쳐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어린 아이의 육신을 지상으로 끌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추정될 뿐이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과 책 따위 기록물들로 넘쳐나는 현재조차도 수천년이 흐른 뒤에는 완벽하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 그때 내 육체가 혹은 내 부장품이 썩지 않고 그 불완전한 기억의 추정물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아무리 누군가 지금 현재의 시간을 방부처리하고 미라처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소멸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헛된 노력일 뿐이다.

너무 많은 시간과 기억의 퇴적층

반구대 암각화 안으로 들어가 한참 고래잡이를 하던 나는 이윽고 역사시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고조선의 정교한 청동거울을 지나 고구려의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현실(玄室)을 지나 백제와 가야를 지나 신라 토우들에게 다다른다. 단순화되고 회화화된 물고기와 뱀과 개구리와 벌거벗은 인간들 사이에서 나도 단순화돼 벌거벗고 성기도 내놓은 채 한참 춤추고 놀고 웃고 울고 성교도 한다. 나는 다시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푸른빛 안으로 들어간다. 푸른빛에 감싸여 그저 지나가는 구름무늬였다가 상감청자에 상감되기도 하고 분청사기를 지나 백자에 와서 비로소 나는 하얗게 사라져버린다.

내 상상력도 이곳에서 끝난다. 나는 단 세시간을 돌아다녔을 뿐이지만 내 상상력은 구석기시대부터 백만년을 헤엄쳐왔다.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기억이다. 오랜 여행을 끝마친 듯 피로감이 물려온다. 나는 서둘러 박물관 바깥으로 나온다. 시간과 기억의 퇴적층 사이에서 빠져나오자 오후 햇빛이 눈부시다. 그러나 이곳은 내가 원래 살던 곳이 맞는가. 꿈속처럼 바깥은 아련하다. 나는 지금 장자의 나비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진달래 한 무더기가 붉다.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나는 2002년으로 돌아온다. —김정근기자